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 목 이물감 : 후두·갑상선 질환

헛기침·목 답답함... 역류성 후두염 의심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진료실로 들어오면서 진료의자에 앉기까지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크음~'하는 목 가다듬는 소리를 한 두 차례 하신다. 목이 답답한 느낌 때문에 헛기침을 하는 것이다. 경험 많은 아버인후과 의사라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물기도 전에 벌써 짐작되는 질환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인후두 역류 질환(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 또는 역류성 후두염(reflux laryngitis)이라고 부르는 질환이다.

◇ 좀처럼 낫지 않는 목 이물감=평소 목에 끼어있는 듯 개운치 않고, 가래가 있는 듯하여 뺄내도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목이물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목이물감과 함께 목을 조급만 써도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이 따끔거거나 시리는 증상, 따른 기침을 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위식도 역류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슴쓰림 등을 함께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환자들마다 다양한 목의 불편감을 호소하므로 다른 원인이 없이 만성적 목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에만 있어야 할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 만성적으로 목 점막을 자극해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는 위산이나 위안의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팔각근이 악해지면서 일어나므로,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는 중년의 환자들에게 많지만 젊은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다.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이 감기만이니 흔하지만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깨끗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아버인후과 의원에서 몇 개월씩이나 약을 잘 먹었는데 좀 좋아지는 듯하다가 도로 그 모양이다'던가 '하도 안 좋아지니 암울 거 같아서, 몇 날 멀을 걱정하다가 대학병원 아버인후과까지 왔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들이 많다.

◇ 장기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병행



전남대병원 윤태미 교수가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에서 목 이물감의 원인과 증세, 암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 점막 자극시키는 만성질환

약물치료·꾸준한 식이요법·생활습관 개선 병행

해야=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약물치료의 반응 및 증상 개선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같은 약물치료를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담배, 커피를 즐겨 마시면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 약물치료는 위산을 줄이기 위한 양자법으로 제거와 주로 쓰

이는 2개월~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이 없다고 조기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감기가 안 난다고 자가 진단해 감기약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다른 후두 및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물감이 있는 경우 후두내시경을 해보아야 한다.

◇ 갑상선암과의 관계=인후두 역류 질환처럼 호흡과 암화를 반복하는 목소리 변화가 아닌 수 주가 지나도록 목이물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의 경우에는 '잘 안 낫는데 암이면 어찌나?'라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안심하고 꾸준한 약물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갑상선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갑상선암의 치료에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과 목이물감과는 관계가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큰 연관성은 없다. 즉, 목이물감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간혹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밑에 있는 기관지나 후두를 누르는 경우 목이물감이나 목불편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이 감기만이니 흔하지만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깨끗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아버인후과 의원에서 몇 개월씩이나 약을 잘 먹었는데 좀 좋아지는 듯하다가 도로 그 모양이다'던가 '하도 안 좋아지니 암울 거 같아서, 몇 날 멀을 걱정하다가 대학병원 아버인후과까지 왔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들이 많다.

◇ 장기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병행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약물치료의 반응 및 증상 개선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같은 약물치료를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담배, 커피를 즐겨 마시면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 약물치료는 위산을 줄이기 위한 양자법으로 제거와 주로 쓰

이는 2개월~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이 없다고 조기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감기가 안 난다고 자가 진단해 감기약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다른 후두 및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물감이 있는 경우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간혹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밑에 있는 기관지나 후두를 누르는 경우 목이물감이나 목불편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약물치료의 반응 및 증상 개선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같은 약물치료를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담배, 커피를 즐겨 마시면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 약물치료는 위산을 줄이기 위한 양자법으로 제거와 주로 쓰

이는 2개월~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이 없다고 조기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감기가 안 난다고 자가 진단해 감기약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다른 후두 및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물감이 있는 경우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간혹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밑에 있는 기관지나 후두를 누르는 경우 목이물감이나 목불편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약물치료의 반응 및 증상 개선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같은 약물치료를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담배, 커피를 즐겨 마시면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 약물치료는 위산을 줄이기 위한 양자법으로 제거와 주로 쓰

이는 2개월~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이 없다고 조기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감기가 안 난다고 자가 진단해 감기약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다른 후두 및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물감이 있는 경우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간혹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밑에 있는 기관지나 후두를 누르는 경우 목이물감이나 목불편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약물치료의 반응 및 증상 개선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같은 약물치료를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담배, 커피를 즐겨 마시면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 약물치료는 위산을 줄이기 위한 양자법으로 제거와 주로 쓰

이는 2개월~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이 없다고 조기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감기가 안 난다고 자가 진단해 감기약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다른 후두 및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물감이 있는 경우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간혹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밑에 있는 기관지나 후두를 누르는 경우 목이물감이나 목불편감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주가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는 애성(목쉰 음성)이 있는 경우에도 후두내시경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마비시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목이물감은 대부분의 경우에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과 갑상선초음파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꾸준한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2~3개월 정도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교실 윤태미 교수)

/체험증기자 e@kwangju.co.kr

문제는 조금 과장하자면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이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그 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소량의 위산 역류로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는 약물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들면서 점점 악해지는 근육 긴장을 도울 수 있는 시절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식이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이다. 초콜릿, 탄산음료, 술,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등 위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감량을 권하며, 과식이나 약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